

2022년 4월 21일 충북 2022-18호

# 보도자료

이 자료는 4.22일(금) 조간으로

취급해주시기 바랍니다.

(방송 및 통신은 4.21일(목) 오후 4시 이후  
취급 가능)

---

## 제 목 : 미시자료를 이용한 충북 자영업자 급감 현황 및 요인 분석

---

- 한국은행 충북본부(본부장 신승철)는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충북 자영업자 현황을 살펴보고, 자영업 업황 개선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을 점검

(자세한 내용은 <붙임> 참조)

붙 임 : 미시자료를 이용한 충북 자영업자 급감 현황 및 요인 분석 1부.

---

문의처 : 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최동명

Tel : 043-220-0591 Fax : 043-220-0596 E-mail : chungbuk@bok.or.kr

“한국은행 충북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 > 지역본부 > 충북본부 > 보도자료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 충북본부

# 미시자료를 이용한 충북 자영업자 급감 현황 및 요인 분석

2022. 4

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한국은행 충북본부**

작성자 : 충북기획조사팀 최동명 과장

A decorative header consisting of six vertical bars in shades of blue and cyan, followed by a white rectangular box containing the text '목 차' (Table of Contents) in black Korean characters.

목 차

< 요약 >

I. 검토 배경 ..... 1

II. 충북지역 자영업 현황 및 특징 ..... 4

- 1. 충북지역 자영업의 현황
- 2. 충북지역 자영업의 특징

III. 충북지역 자영업의 업황 개선 제약요인 .... 15

- 1. 미흡한 수요기반
- 2. 역외소비 증가(경쟁범위 확대)
- 3. 코로나19 영향

IV. 종합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..... 23

- 1. 종합평가
- 2. 정책적 시사점

< 참고문헌 >

## 【 요약 】

### ① [검토배경] 충북지역 자영업자 수(농림어업 제외)가 2019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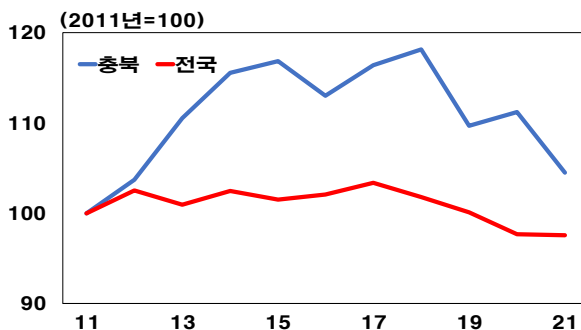
○ '20년 이전에 이미 자영업자 수가 상당 폭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자영업자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시사

⇒ 충북 자영업의 현황 및 자영업자 감소 원인 등을 살펴보고 향후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을 점검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

### ② [현황] '18~'21년 중 충북의 자영업자는 전국에 비해 큰 폭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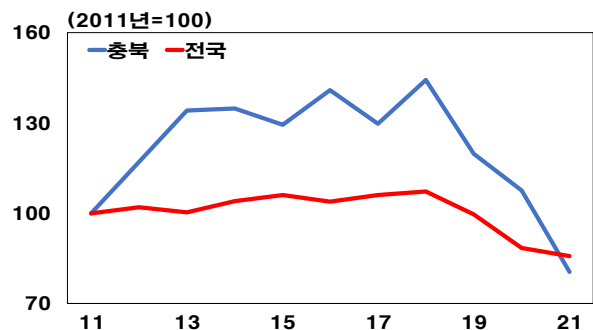
○ 특히, 전체 자영업자 수가 줄어드는 와중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의 큰 폭 감소는 충북 자영업 업황의 심각성을 보여줌

**전체 자영업자 수 추이**



주: 1) 농림어업 제외  
자료: 통계청 「지역별고용조사」 MDIS

**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 추이<sup>1)</sup>**



주: 1) 농림어업 제외  
자료: 통계청 「지역별고용조사」 MDIS

○ 도·소매('15~'21년), 음식·숙박('20년 이후)에서의 자영업자 감소가 두드러지며 20년 이후 배달라이더 증가는 자영업자 감소 폭을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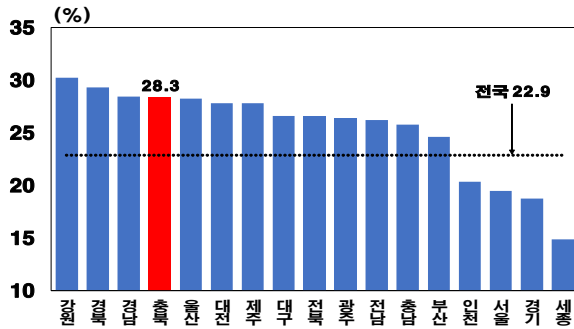
### ③ [특징] 대면서비스업, 영세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영업 부진 및 부채 증가세가 지속

○ (대면서비스업 중심의 구조) 숙박·음식점업을 중심으로 대면서비스업 자영업체의 비중(67.1%)이 전국(62.6%) 대비 높은 모습

○ (높은 영세성) 생계형 창업이 많고 간이사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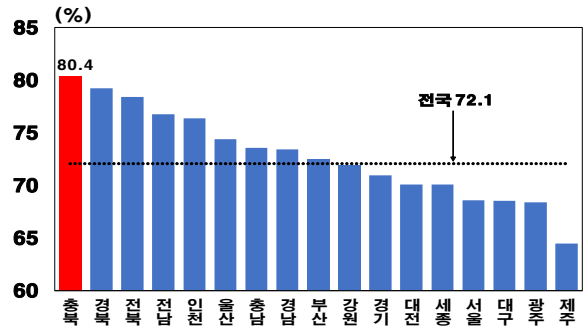
—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모습

지역별 간이사업자 비중<sup>1)2)</sup>



주: 1) 2020년 기준  
2) 전체 개인사업자(농림어업 제외) 대비  
자료: 국세청 「국세통계」

지역별 고용원 無 자영업자 비중<sup>1)2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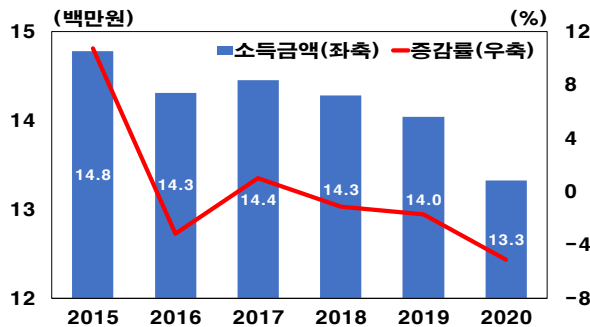


주: 1) 전체 자영업자(농림어업 제외) 수 대비  
2) 2021년 상반기 기준  
자료: 통계청 「지역별고용조사」 MDIS

○ (영업 부진 지속) 도내 자영업자의 수익성 지표가 감소 또는 정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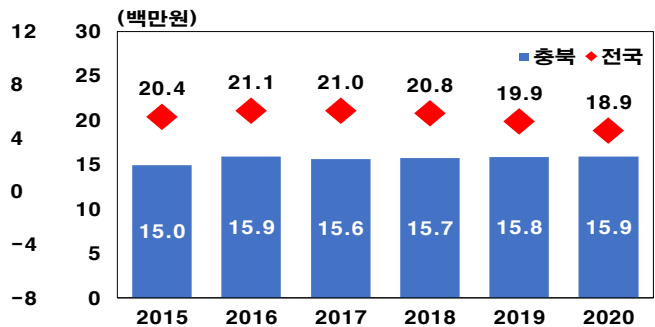
— 사업장당 소득금액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 1인당 영업잉여도 전국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정체된 것으로 추정

충북지역 개인사업자 소득금액<sup>1)</sup>



주: 1) 사업장당 사업소득 신고액 기준  
자료: 국세청 「국세통계」

충북지역 자영업자 1인당 영업잉여<sup>1)</sup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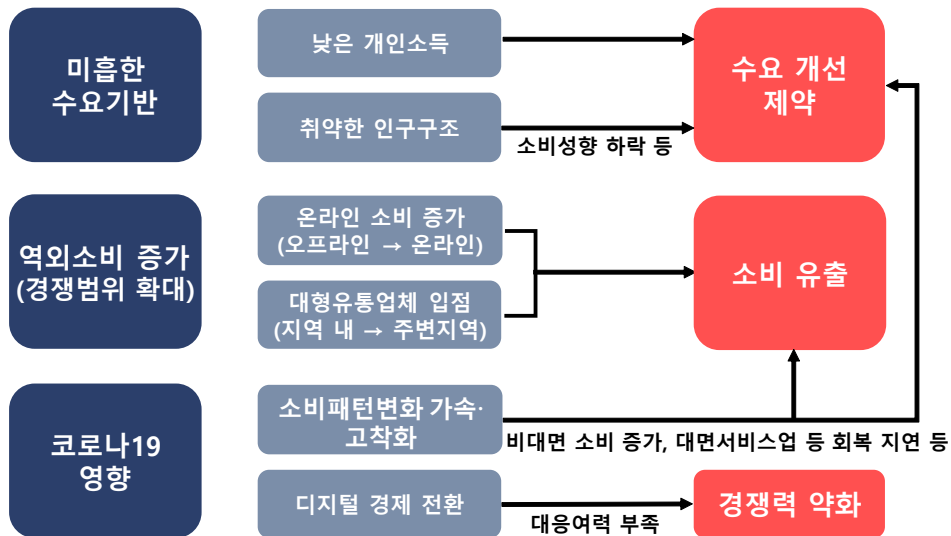
주: 1) 「지역소득」의 영업잉여를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의 자영업 종사자로 나누어 추정  
자료: 통계청 「지역소득」 및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

○ (빠른 부채 증가세) 자영업자 전체 부채와 1인당 부채가 전국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

— 다만 취약차주 부채 비중, 소득대비 대출비율(LTI) 등으로 평가한 채무상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

④ [업황 개선 제약요인]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단기적인 업황 개선은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·구조적인 개선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

- (미흡한 수요기반) 개인소득이 낮고 전국에 비해 취약한 인구구조로 수요가 개선될 여지가 낮은 것으로 평가
- (역외소비 증가) 전자상거래 확대 및 인접 지역에서의 잇따른 대형 유통업체 입점 등으로 경쟁범위가 확대되며 지역민의 소비가 유출
- (코로나19 영향) 코로나19 이후 소비패턴 변화 및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전환은 충북 내 자영업황 개선에 하방요인으로 작용



⑤ [정책적 시사점] 수요기반 확충, 자영업 대출 관리, 자영업 구조 개선 등이 필요

- (수요기반 확충) 역내 소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직주불일치 해소, 관광 수요 창출 등으로 외부수요를 유인
- (자영업 대출 관리) 소득·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차주 특성을 고려한 금융지원으로 자금지원의 효율성 제고
- (자영업 구조 개선) 과밀업종 해소 유도, 환경변화 대응여력 제고, 폐업을 유예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전직 지원 등이 필요

**I****검토 배경**

□ 충북지역 자영업자 수(농림어업 제외)가 '18년에 15.1만명으로 정점 도달 이후 급감하여 '21년(상반기)에 13.3만명으로 축소

○ 특히 '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'의 경우 '21년 상반기에 2.6만명으로 '18년(4.7만명)의 절반 수준

충청북도 자영업자 변화<sup>1)2)3)</sup>

	2018	2019	2021.상 (만명, %)
전체 자영업자	15.1	14.0 ( △7.2)	13.3 ( △11.6)
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	4.7	3.9 ( △17.0)	2.6 ( △44.2)
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	10.4	10.1 ( △2.7)	10.7 ( 3.1)

주: 1) 분석에 사용되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 '11년~'21년 상반기까지만 가용

2) 괄호( )는 2018년 대비 증감률

3) 농림어업 제외

자료: 통계청 「지역별고용조사」 MDIS

○ '20년 이전에 이미 자영업자 수가 상당 폭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자영업자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시사

□ 전국적으로도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악화되었기에 충북 자영업자 감소가 전국과 유사한 상황인지 지역 특이 요인 때문인지 구별할 필요

○ 전국 자영업자수(농림어업 제외)는 '18년 479.2만명에서 '21년(상반기) 459.2만명으로 4.2% 감소

⇒ 충북 자영업의 현황 및 자영업자 감소 원인 등을 살펴보고 향후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을 점검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

<참고1>

## 자영업의 정의 및 사용 통계

- 자영업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소유·운영하는 사업활동 등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, 관련 기관별로 자영업자, 개인사업자, 소상공인 등으로 분류하여 통계를 공표
  - 자영업자: 통계청의 「경제활동인구조사(월별)」 및 「지역별고용조사(반기별)」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\*로 구분
    - \*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
    - 「지역별고용조사」에서는 시군구 및 업종별로 세분화된 자영업자 통계를 제공하나 2021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만 가용(22.4월 기준)
  - 개인사업자: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일반사업자, 간이사업자\*, 면세사업자\*\*로 구분하며 국세청에서 관련 통계를 발표
    - \* 직전 과세기간 중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,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 과세사업자 (단, 2021년부터 8,000만원으로 상향 조정)
    - \*\*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
  - 개인사업체: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「전국사업체조사」의 조직형태별 사업체 중 개인이 소유·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
  - 소상공인: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(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)인 기업을 의미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당 통계를 관리
- 본 고에서는 자영업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분류들을 자영업으로 통칭
  - 한편, 세부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, 통계적 오차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동 통계를 사용할 때는 단순 수치보다는 증감률, 비중 분석에 중점



□ 또한, 자영업자 수 분석시 경기변동과는 다소 거리가 먼 **농림어업 종사자를 가급적 배제**

○ 분석 결과, **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제조업, 서비스업과 달리 경기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**

**산업별 취업자 수의 경기민감도 분석<sup>1)2)</sup>**

농림어업	광·제조·건설업	서비스업
-0.07	0.34***	0.24***

주: 1) 2000.1/4분기 ~ 2021.4/4분기 중 산업별 취업자 수의 순환변동치를 종속변수로, 실질GDP의 순환변동치를 설명변수로 하는 AR(1) 모형을 추정 후 설명변수의 계수를 경기민감도로 간주

2) \*\*\*는 1%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

자료: 통계청, 자체분석

○ 또한, 사업체 조사와의 정합성, 타 지역과 비교의 용이성 등도 고려

— 「전국사업체조사」에서는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사업체가 제외되는 가운데 농림어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농림어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수가 비교적 많은 경향

○ 한편, 중복의 경우 2021년 상반기 기준 전체 자영업자의 30.6%가 농림어업 종사자

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4.1%,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34.9%가 농림어업 종사자

**충북지역 자영업 관련 통계 비교<sup>1)2)3)</sup>**

종사자 수 기준			사업체 수 기준	
자영업자 (경제활동인구조사)	자영업자 (지역별고용조사)	개인사업자	개인사업체	소상공인
19.8만명	19.9만명 <14.2만명>	21.7만명 <21.4만명>	10.5만개	8.3만개

주: 1) 종사자 수는 2020년, 사업체 수는 2019년 기준

2) < >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(경제활동인구조사는 지역·업종별 자영업자 통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사업체 수 기준 통계의 경우 이미 농림어업이 제외된 수치)

3) 개인사업자의 경우 한 개인이 복수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중복 집계

자료: 통계청, 국세청, 중소벤처기업부

## II 충북지역 자영업 현황 및 특징

### 1 충북지역 자영업의 현황

- ◆ '18~'21년 중 충북지역 자영업자는 연평균 4.0%씩 감소하여, 동기간 전국 (1.4% 감소)보다 2.6%p 높은 감소율을 보임
- ◆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는 도·소매업을 중심으로, 코로나19 발생 이후로는 숙박·음식업을 중심으로 충북 자영업이 악화되는 모습

#### (자영업 종사자수 변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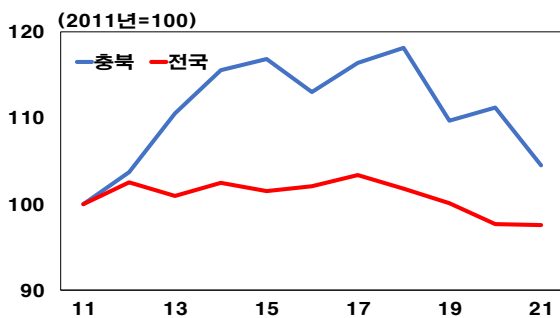
- '11~'18년 중 연평균 2.4%로 증가하던 **충북지역 자영업자 수(농림어업제외)**가 '19년 이후로 연 4.0%씩 감소하여 '21년(상반기)\* 기준 13.3만명 수준

\* 농림어업 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를 분석하고 전국과 비교하기 위해 마이크로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하나 2022년 4월 현재 '21년 상반기까지만 관련 데이터가 가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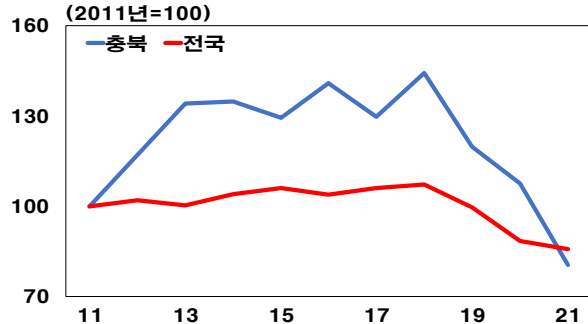
-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'11~'18년 중 연평균 5.4%씩 성장하였으나 '19년 이후 연평균 17.7%씩 급감하며 전체 자영업자의 변동을 주도

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'11년 이후 연평균 1.2%씩 증가

전체 자영업자 수 추이<sup>1)</sup>



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 추이<sup>1)</sup>



	(충북, 만명)				(전국, 만명)			
	2011	2018	2019	2021	2011	2018	2019	2021
전체 자영업자수	12.7	15.1	14.0	13.3	470.7	479.2	471.3	459.2
고용원 유	3.2	4.7	3.9	2.6	149.4	160.2	148.8	128.2
고용원 무	9.5	10.4	10.1	10.7	321.3	319.0	322.5	331.0

주: 1) 2021년은 상반기 기준(농림어업 제외)  
 자료: 통계청 「지역별고용조사」 MDI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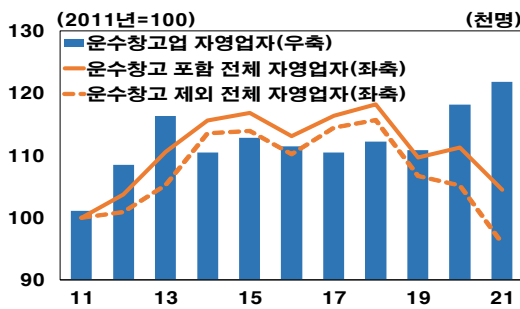
□ 한편, 배달라이더 수를 통제할 경우 자영업자 수 감소 폭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

○ 코로나19 영향으로 '20~'21년 배달라이더\* 수가 급격히 증가

\* 종사상 지위는 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며, 산업분류로는 운수·창고업에 해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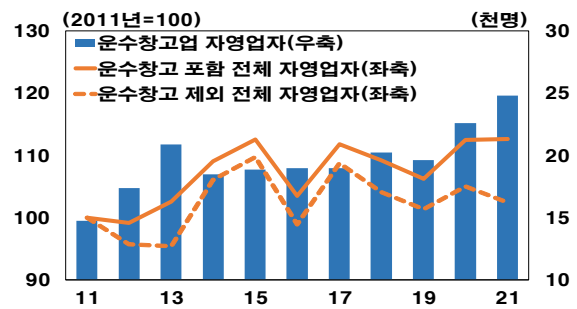
	2019	2021.상반	(증감률)
충북의 운수·창고 자영업자 수(천명)	20.4	25.9	(26.8%)

충북 전체 자영업자 수 추이<sup>1)2)</sup>



주: 1) 농림어업 제외  
2) 2021년은 상반기 기준  
자료: 통계청 「지역별고용조사」, MDIS

충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 추이<sup>1)2)</sup>



주: 1) 농림어업 제외  
2) 2021년은 상반기 기준  
자료: 통계청 「지역별고용조사」, MDI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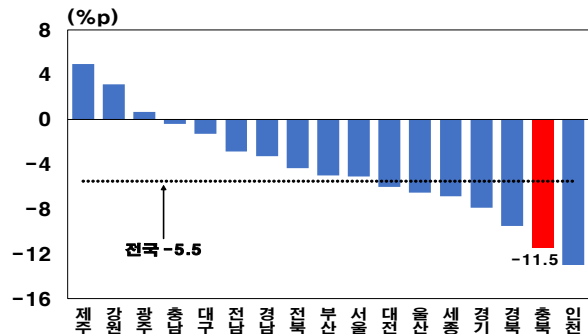
□ 전체 자영업자수가 줄어든 와중에 고용원有 자영업자의 비중이 큰 폭 감소한 것은 자영업 업황의 악화를 시사

○ 김우영 등(2012), 주동헌 등(2013)에서는 고용원有 자영업자는 경기와 정(+)의 관계가, 고용원無 자영업자는 부(-)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

— 경기 위축시 고용원有 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고용원無 자영업자로 전환하고 일부 실업자들이 생계를 위해 창업(고용원無 자영업)

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 변화 및 지역별 비교('18년 대비 '21년 상반기 변화)

	(%)	
	충북	전국
2018	31.1	33.4
2021.상반	19.6	27.9
증감(%p)	11.5 ↓	5.5 ↓



자료: 통계청 「지역별고용조사」, MDIS (농림어업 제외)

(전국과 비교)

□ 충북지역 자영업자 수 변동은 전국 공통요인보다 지역 특이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

○ '11년~'18년 중 충북과 전국에서 자영업자 수가 각각 연평균 2.4%, 0.3%로 증가하다 '19년 이후 각각 연 4.0%, 1.4%씩 감소

— 고용원이 있는 경우는 충북과 전국에서 각각 연평균 5.4%, 1.0%로 증가하다 '19년 이후 각각 연 17.7%, 7.1%씩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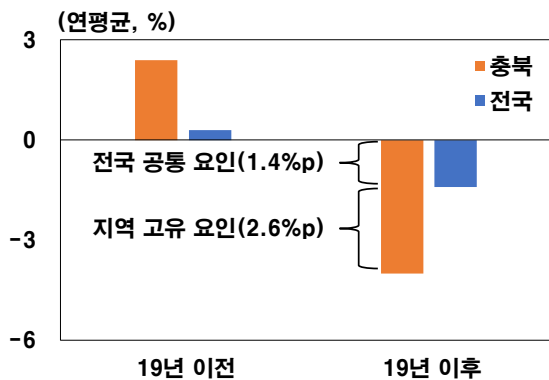
○ 전국 자영업자의 변동을 공통요인으로 간주하였을 때 '19년 이후 충북 고유요인만으로 자영업자가 연 2.6%씩 감소\*한 것으로 해석 가능

\*  $\Delta 2.6\%(\text{충북 고유요인}) = \Delta 4.0\%(\text{충북 자영업자수 변화}) - \Delta 1.4\%(\text{전국 자영업자수 변화})$

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충북 고유요인만으로 연 10.6%씩 감소\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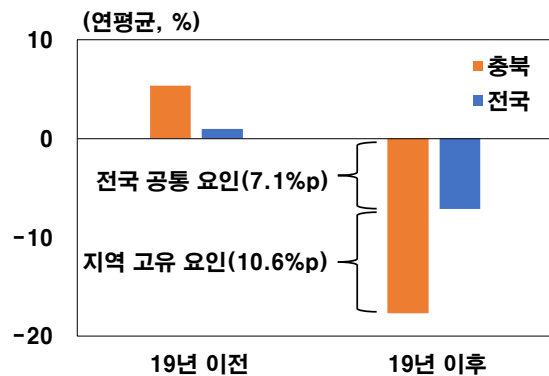
\*  $\Delta 10.6\%(\text{충북 고유요인}) = \Delta 17.7\%(\text{충북 자영업자수 변화}) - \Delta 7.1\%(\text{전국 자영업자수 변화})$

전체 자영업자 공통·고유 요인<sup>1)</sup>



주: 1) 농림어업 제외  
자료: 통계청 「지역별고용조사」 MDIS

고용원 有 자영업자 공통·고유 요인<sup>1)</sup>



주: 1) 농림어업 제외  
자료: 통계청 「지역별고용조사」 MDIS

## (주요 업종 분석)

### □ 도·소매, 숙박·음식, 운수·창고의 3가지 업종\*이 최근 자영업자 수 변동의 상당 부분을 설명

\* 상기 3가지 업종은 충북 자영업자 수의 약 54.0%를 차지('18 ~ '21년 상반기 평균 기준)

○ 도·소매 자영업자 수의 경우 **코로나19** 발생과 **상관없이** '15~'21년 중 **연평균 6.9%씩 감소**(순기간에 걸친(특히 코로나 이전) 하락을 주도)

— 도·소매업 자영업자 수가 '15년 이후 불변이었다면 '19년 자영업자 수는 151천명(데이터 대비 +12천명), '21년에는 147천명(데이터 대비 +14천명)

○ 숙박·음식 자영업자수의 경우 '15~'19년 중 연평균 0.1%씩 감소하다가 '20, '21년에 **연평균 10.0%씩 감소**(코로나19 이후 하락을 주도)

— 숙박·음식업 자영업자수가 '15년 이후 불변이었다면 '19년 자영업자수는 140천명(데이터 대비 +0천명), '21년에는 138천명(데이터 대비 +5천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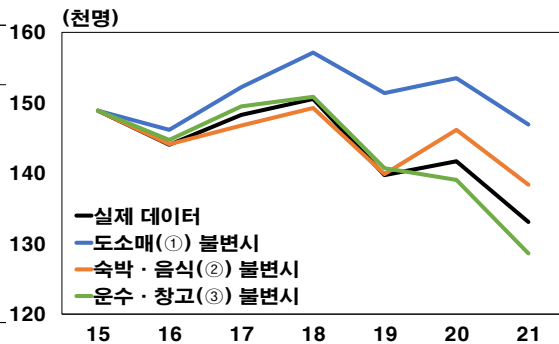
○ 운수·창고 자영업자수의 경우 '15~'19년 중 연평균 1.2%씩 감소하다가 '20, '21년에 **연평균 12.6%씩 성장**(코로나19 이후 급락을 방지)

— 운수·창고업 자영업자수가 '15년 이후 불변이었다면 '19년 자영업자수는 141천명(데이터 대비 +1천명), '21년에는 129천명(데이터 대비 △4천명)

충북 주요 업종별 자영업자 수<sup>1)2)</sup>

(단위: 천명)	2015	2018	2019	2021
자영업자수	148.9	150.5	139.7	133.1
도·소매(①)	39.5	32.9	27.9	25.7
숙박·음식(②)	27.0	28.2	26.8	21.7
운수·창고(③)	21.4	21.1	20.4	25.9

반사실적 자영업자 수<sup>1)2)</sup>



주: 1) 2021년은 상반기 기준

2) 농림어업 제외

자료: 통계청 「지역별고용조사」, 자체시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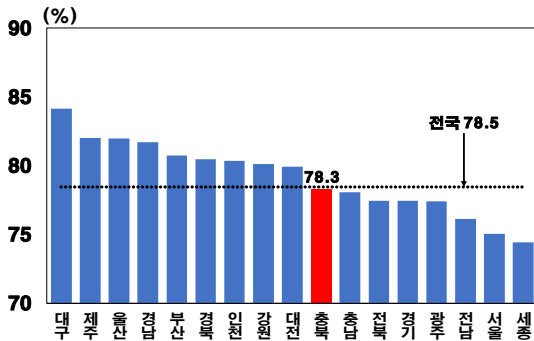
<참고2>

## 기타 자영업 현황

### (사업체 현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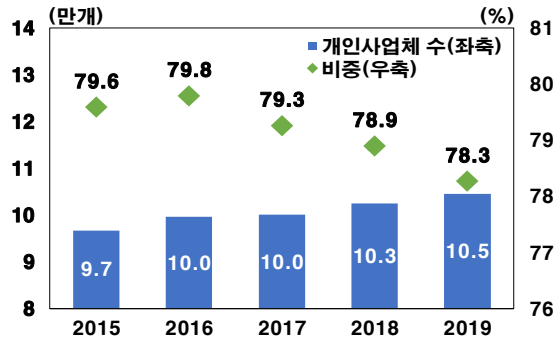
- 전체 사업체에서 개인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(78.3%)은 전국(78.5%)과 유사
  - 개인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사업체가 더 많이 증가하면서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

지역별 개인사업체 비중<sup>1)2)</sup>



주: 1) 2019년 기준  
2) 전체 사업체 수 대비  
자료: 통계청 「전국사업체조사」

충북지역 개인사업체 수 및 비중<sup>1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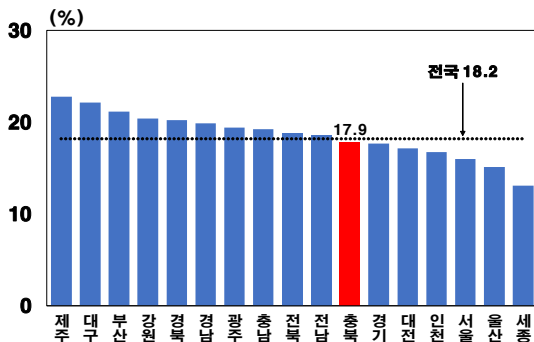


주: 1) 전체 사업체 수 대비  
자료: 통계청 「전국사업체조사」

### (종사자 현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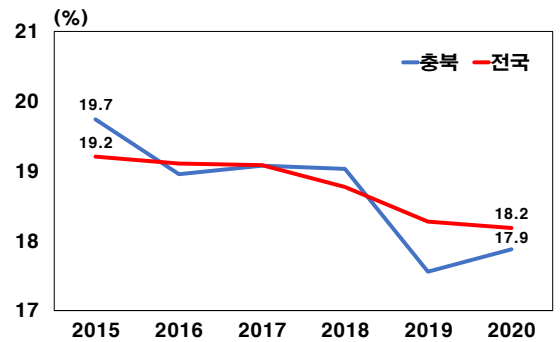
- 충북지역의 자영업자 비중(전체 취업자 대비)은 17.9%으로 전국(18.2%)과 비슷한 수준(2020년 기준)
  - 전국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(2015년 19.7% → 2020년 17.9%)

지역별 자영업자 비중<sup>1)2)</sup>



주: 1) 2020년 기준  
2) 전체 취업자 수 대비(농림어업 제외)  
자료: 통계청 「지역별고용조사」 MDIS

충북 및 전국의 자영업자 비중 추이<sup>1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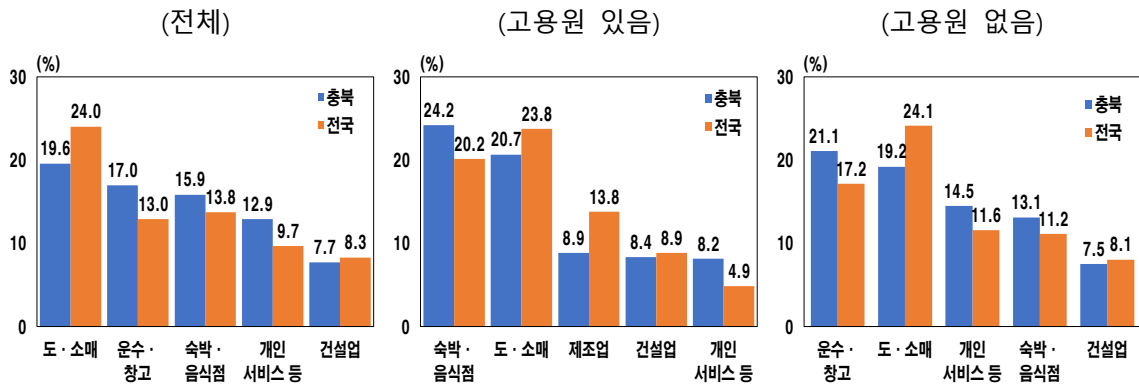


주: 1) 전체 취업자 수 대비(농림어업 제외)  
자료: 통계청 「지역별고용조사」 MDIS

□ (업종별) 전국과 유사하게 도·소매, 운수·창고, 숙박·음식점업 등의 비중이 높음

- 다만, 전국은 고용원 유무에 관계없이 도·소매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충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는 숙박·음식점의 비중이,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서는 운수·창고의 비중이 가장 높은 모습

### 주요 업종별 자영업자 비중<sup>1)</sup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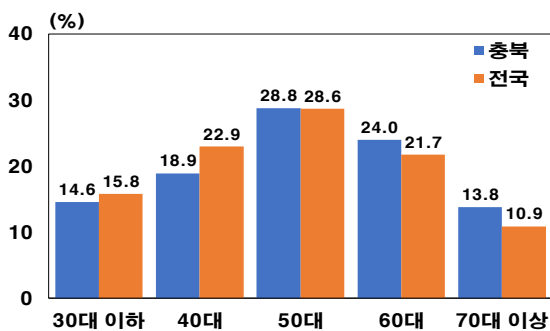
주: 1) 2020년 기준(농림어업 제외)  
 자료: 통계청 「지역별고용조사」 MDIS

□ (연령별) 충북 자영업자는 전국과 마찬가지로 역 U자형 연령 패턴을 보임

- 평균 연령\*이 높은 농림어업 종사자를 포함했을 경우는 전국보다 60대 이상 비중이 높으나 농림어업을 제외했을 경우 60대 이상 비중은 소폭 낮고 30대 이하 비중이 다소 높은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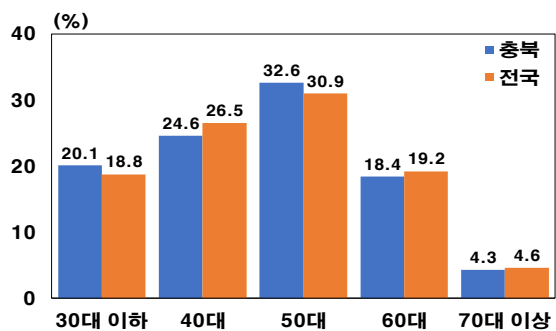
\* 농림어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62.6세로 전체 취업자(46.5세) 대비 높을 뿐만 아니라 업종별(대분류 기준)로도 가장 높은 수준(2020년 기준)

### 연령별 자영업자 비중(농림어업 포함)<sup>1)</sup>



주: 1) 2020년 기준  
 자료: 통계청 「지역별고용조사」 MDIS

### 연령별 자영업자 비중(농림어업 제외)<sup>1)</sup>



주: 1) 2020년 기준  
 자료: 통계청 「지역별고용조사」 MDIS

## 2 충북지역 자영업의 특징

- ◆ 대면서비스업 비중이 큰 가운데, 간이사업자(소액매출 사업자)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영세한 모습
- ◆ 영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부채 증가 속도도 빠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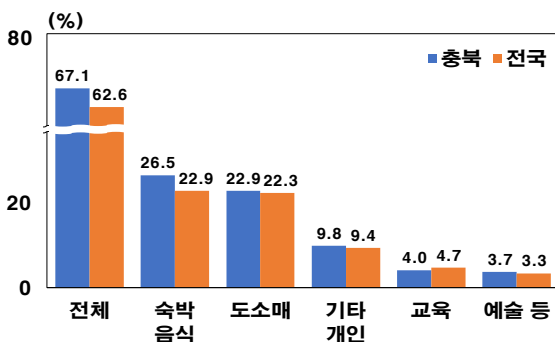
### (대면서비스업 중심의 구조)

#### □ 충북의 경우 대면서비스업\* 자영업체의 비중이 높은 모습

\* 도·소매(자동차·연료 판매, 무점포 소매업 등 제외), 숙박·음식, 교육, 예술·스포츠·여가, 기타 개인서비스(이·미용, 육탕, 마사지, 세탁 등) 등을 포함

- 특히, 음식점업 비중은 관광도시(강원 및 제주), 행정도시(세종) 등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

업종별 대면서비스업 비중<sup>1)2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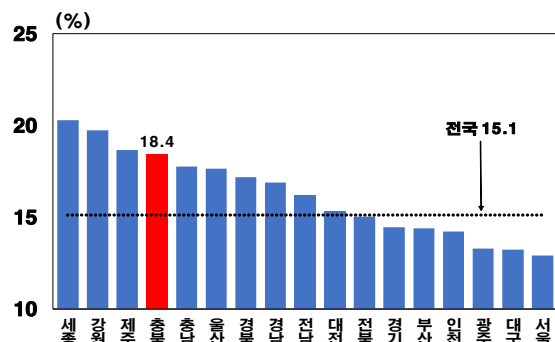


주: 1) 2019년 기준 전체 개인사업체 대비

2) 도·소매는 자동차·연료 판매, 무점포 소매업 등 제외

자료: 통계청 「전국사업체조사」

지역별 음식점업<sup>1)</sup> 비중<sup>2)</sup>



주: 1) 숙박·음식점업에서 숙박, 음료 제외

2) 2019년 기준 전체 개인사업체 대비

자료: 통계청 「전국사업체조사」

### (높은 영세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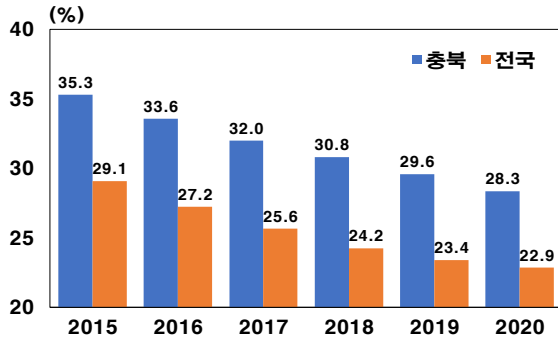
#### □ 간이사업자\*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이는 등 자영업 구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영세

\* 전년도 매출액이 4,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(다만, 2021년부터 매출액 기준이 8,000만원으로 상향)

- 간이사업자 비중(전체 개인사업자 대비)이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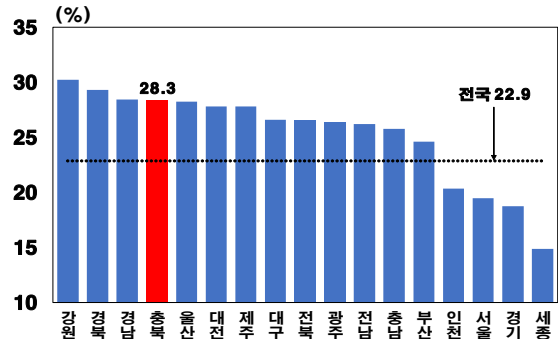


### 간이사업자 비중<sup>1)</sup> 추이<sup>2)</sup>



주: 1) 전체 개인사업자(농림어업 제외) 대비  
 2) 2000년부터 적용기준(4,800만원)이 동일해 비중 자체는 낮아지는 경향  
 자료: 국세청 「국세통계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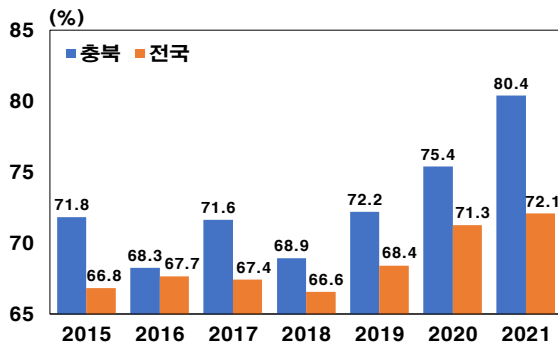
### 지역별 간이사업자 비중<sup>1)2)</sup>



주: 1) 2020년 기준  
 2) 전체 개인사업자(농림어업 제외) 대비  
 자료: 국세청 「국세통계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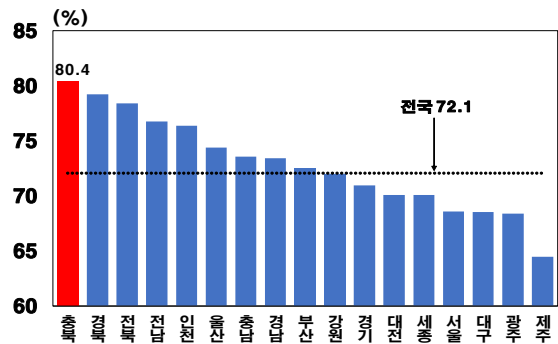
- 최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시현(2021년 상반기 기준)

### 고용원 無 자영업자 비중 추이<sup>1)2)</sup>



주: 1) 전체 자영업자(농림어업 제외) 수 대비  
 2) 2021년은 상반기 기준  
 자료: 통계청 「지역별고용조사」, MDIS

### 지역별 고용원 無 자영업자 비중<sup>1)2)</sup>



주: 1) 전체 자영업자(농림어업 제외) 수 대비  
 2) 2021년 상반기 기준  
 자료: 통계청 「지역별고용조사」, MDIS

- 한편, 주요 업종별로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가운데 특히, 숙박·음식에서 전국과의 차이가 큰 모습

### 주요 업종별<sup>1)</sup>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<sup>2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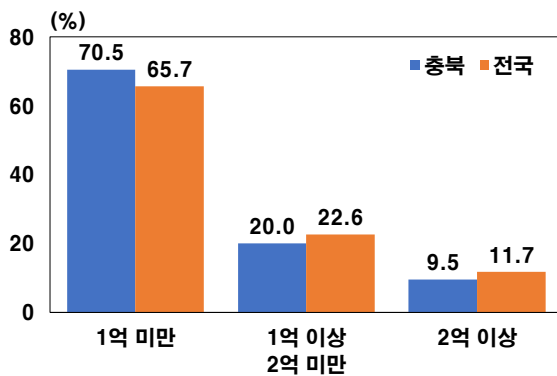
구분	숙박·음식	도소매	운수·창고	기타 개인서비스
충북	71.7	76.6	95.7	89.3
전국	59.6	70.8	94.5	85.4

주: 1) 충북의 2019년 개인사업체 수 기준 상위 4개 업종  
 2) 2021년 상반기 기준  
 자료: 통계청 「지역별고용조사」, MDIS

□ **충북 내 영세한 자영업 구조는 생계형 창업이 많은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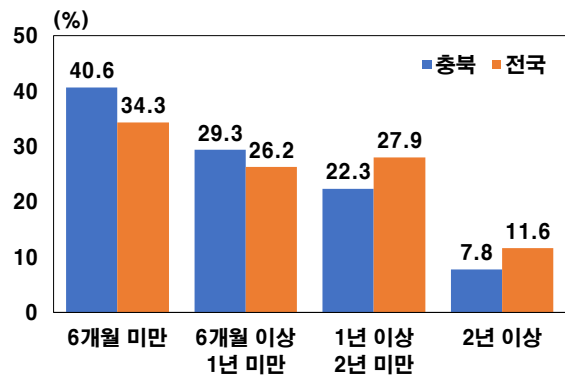
○ 적은 창업비용으로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원을 유지할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

**창업비용별 개인사업자 비중<sup>1)2)</sup>**



주: 1) 2019년 기준  
2) 무응답값 제외  
자료: 통계청 「소상공인실태조사」 MDIS

**창업준비기간별 개인사업자 비중<sup>1)2)</sup>**



주: 1) 2019년 기준  
2) 무응답값 제외  
자료: 통계청 「소상공인실태조사」 MDIS

○ 또한,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고 간이과세자 비중이 높은 숙박·음식업에서의 신규 창업이 전국보다 두드러지는 모습

**충북 내 주요 업종별 신규 개인사업자 비중<sup>1)2)3)4)</sup>**

업종	충북 (%)	전국 (%)
도소매	22.8	23.1
숙박·음식	21.2	15.7
기타 서비스	19.1	20.5
부동산 임대	15.3	23.0
건설	6.6	5.3
합계	<44.6>	<64.3>
합계(간이과세자 제외)	<40.4>	<18.4>
합계(간이과세자 포함)	<2.0>	<2.0>

주: 1) 2015~20년 중 전체 신규 개인사업자 대비(농림어업 제외)  
2) 기타 서비스업은 전체 서비스업 중 도·소매, 운수·창고·통신, 부동산 등을 제외  
3) ( )는 전국의 업종별 신규 개인사업자 비중  
4) < >는 충북 내 해당 업종에서의 신규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비중  
자료: 국세청 「국세통계」

**(영업 부진 지속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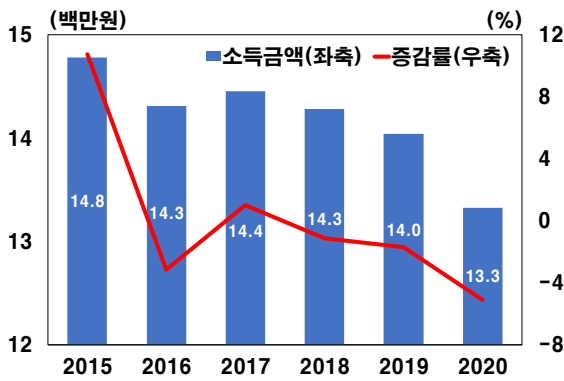
□ 자영업 관련 수익성 지표의 감소 또는 정체 지속

-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당 소득금액\*은 2015년 14.8백만원에서 2020년 13.3백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국(13.8백만원)보다 다소 낮은 수준

\*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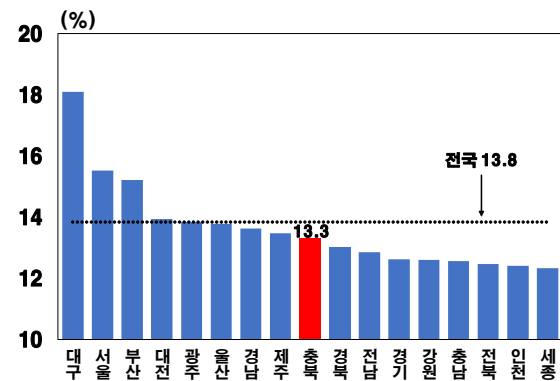
- 또한, 동기간 중 결손소득(소득금액이 0 이하인 경우)을 기록한 사업장 수의 비중도 5.3%에서 7.4%로 증가

충북지역 개인사업자 소득금액<sup>1)</sup>



주: 1) 사업장당 사업소득 신고액 기준  
자료: 국세청 「국세통계」

지역별 개인사업자 소득<sup>1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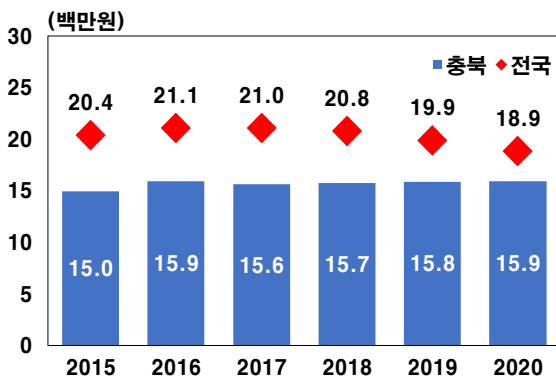


주: 1) 사업장당 사업소득 신고액 기준  
2) 2020년 기준  
자료: 국세청 「국세통계」

- 한편, 자영업자 1인당 영업잉여를 추정\*해보면 전국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정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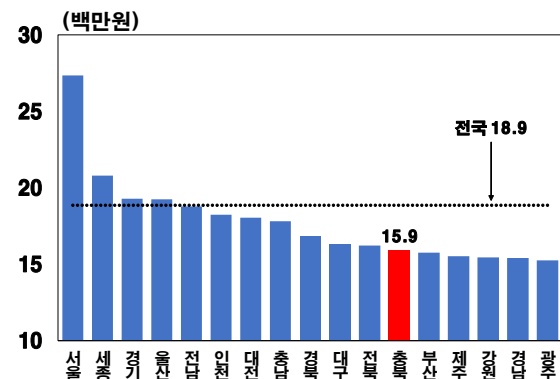
\* 통계청 「지역소득」의 영업잉여(개인 기준)를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의 자영업 종사자 수로 나누어 추정

자영업자 1인당 영업잉여



자료: 통계청 「지역소득」 및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

지역별 자영업자 1인당 영업잉여<sup>1)</sup>



주: 1) 2020년 기준  
자료: 통계청 「지역소득」 및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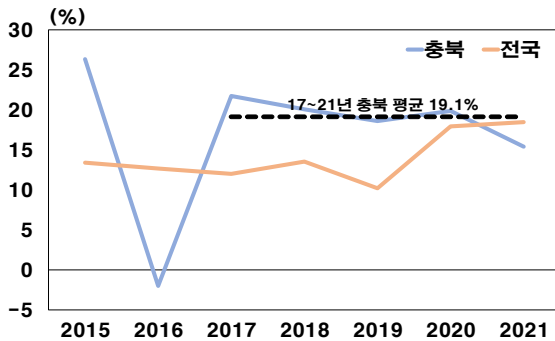
(빠른 부채 증가세)

□ 한국은행 가계부채DB로 추정된 충북지역의 자영업자 부채\*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

\*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차주의 기업여신금액을 자영업자 부채로 정의하였으며 기업여신금액과 가계대출의 합계를 자영업자 부채로 정의하는 기존의 연구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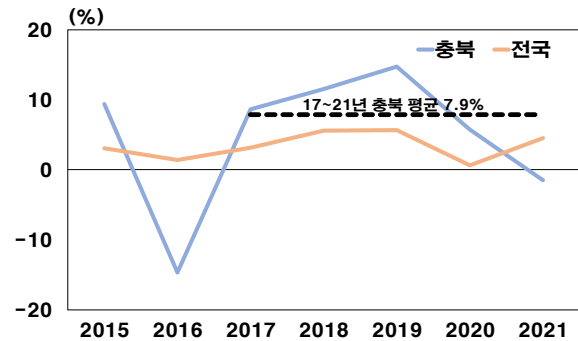
○ '17년 이후 충북의 자영업자 전체 및 1인당 부채 증가율은 전국보다 대체로 높은 모습

자영업자 부채 증감률



자료: 한국은행

자영업자 1인당 부채 증감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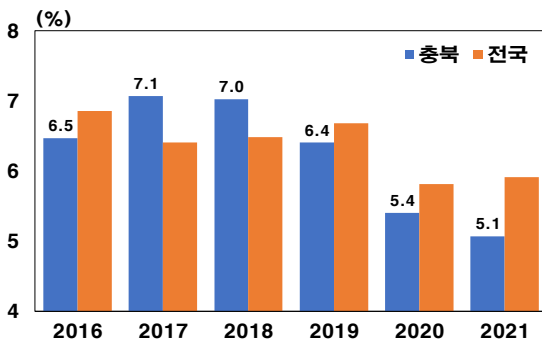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

○ 다만 취약차주\*의 부채 비중, 소득대비 대출비율(LTI) 등은 비교적 낮아 충북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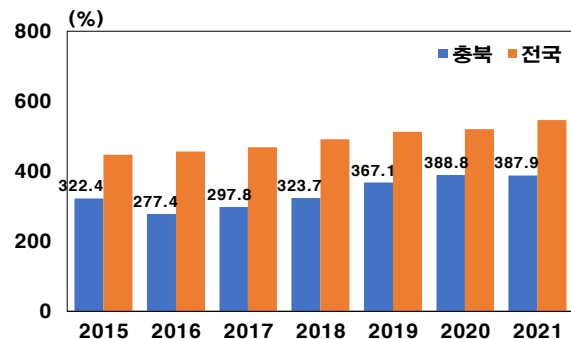
\* 다중채무자(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주)이면서 저소득(소득 하위 30% 이하) 또는 저신용(신용점수 664점 이하) 차주

자영업자 취약차주 부채 비중<sup>1)</sup>



주: 1) 전체 자영업자 부채 대비  
자료: 한국은행

자영업자의 소득대비 대출비율(LTI)


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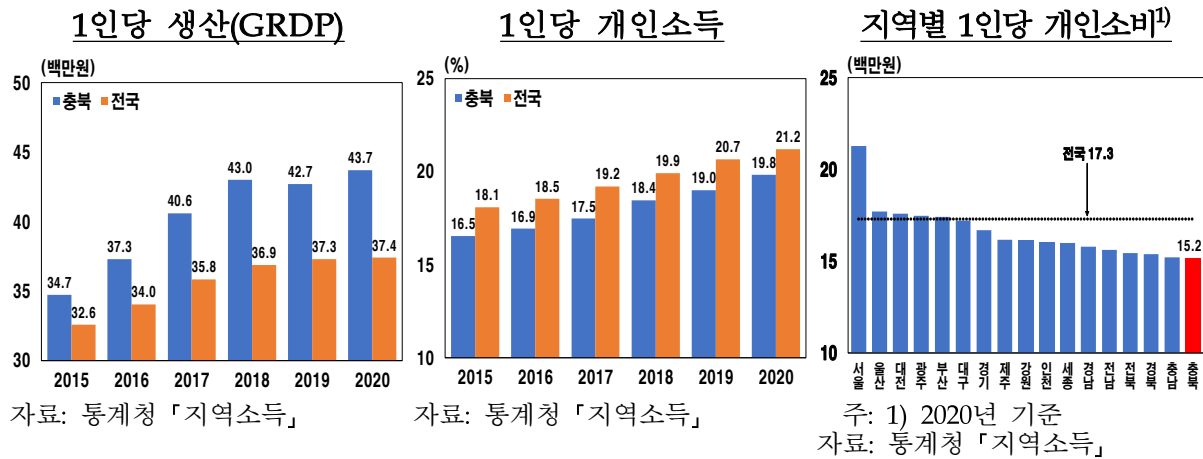
### Ⅲ 충청지역 자영업의 업황 개선 제약요인

#### 1 미흡한 수요기반

◆ 1인당 개인소득 및 소비가 전국 대비 낮고, 소비성향이 낮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높아 자영업 업황 개선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

□ (낮은 개인소득) 지역경제의 가파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1인당 개인소득이 낮아 소비 여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평가

- 충북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(GRDP)은 '15~'20년 중 연평균 4.7%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시현
- 그러나 구매력지표인 1인당 개인소득(2020년 기준 전국 15위)과 1인당 개인 소비(17위)는 전국 최하위 수준



- 이와 같은 생산과 개인소득 간의 괴리는 도내 생산으로 창출된 부가가치(소득)가 역외로 유출되는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\*

\* 자세한 내용은 <참고3> 「충북의 역외소득 유출 현황」 참조

<참고3>

### 충북의 역외소득 유출 현황

□ 충북의 역외소득 유출비중('20년 기준)은 18.0%로 전국 2위(1위는 충남 20.2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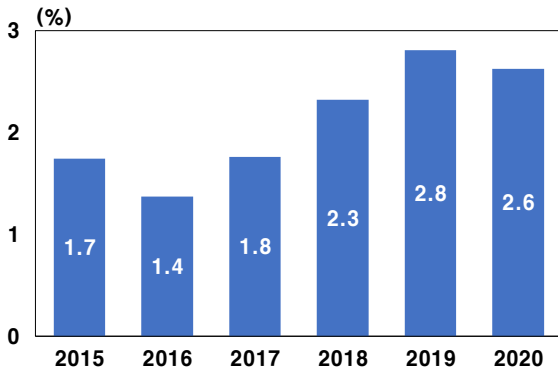
○ 역내 사업장과 본사 간 소재지 불일치\*로 영업잉여가 서울·경기 등 본사 소재지로 이전

\* 2019년 기준 충북 도내에 소재한 제조업 사업장 중 본점(단독사업체 포함) 비중은 77.2%이며 이는 세종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

○ 또한, 직주불일치로 통근자 순유입\* 비중(지역 내 취업자 대비, 2020년 기준 전국 5위)이 높은 데다 특히, 통근자 중 고소득 근로자가 많아 피용자보수가 유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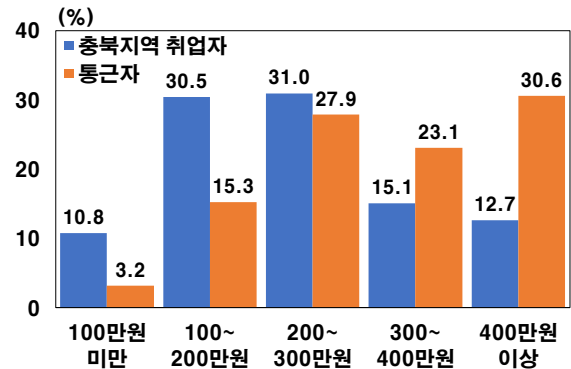
\* 역외 거주하는 역내 취업자에서 역내 거주하는 역외 취업자를 제외

충북지역 통근자 순유입 비중<sup>1)2)</sup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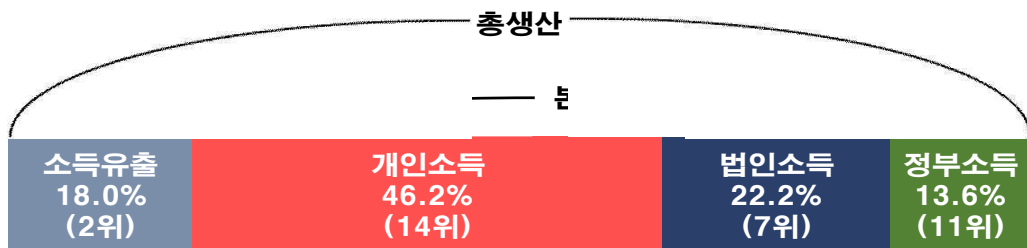
주: 1) 지역 내 취업자 대비  
자료: 통계청 「지역별고용조사」 MDIS

취업자<sup>1)</sup> 및 통근자<sup>2)</sup> 월소득별 비중<sup>3)</sup>



주: 1) 충북 내 거주자 기준  
2) 충북 외 거주자 중 충북 내 취업자 기준  
3) 2015~20년 평균(임금근로자 기준)  
자료: 통계청 「지역별고용조사」 MDIS

### 충북의 GRDP 분해<sup>1)</sup>



주: 1) 2020년 기준 2) 괄호는 전국 순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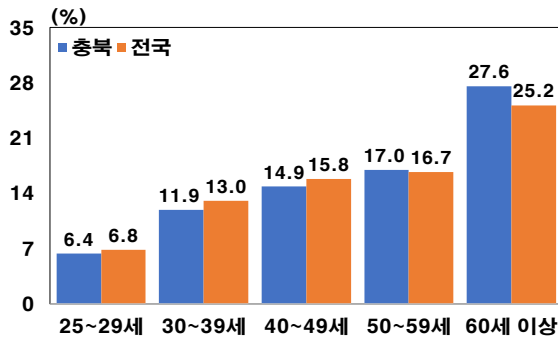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 「지역소득」

□ (취약한 인구구조) 핵심생산인구(25~49세)의 비중이 낮은 반면 고령자 비중이 높아 도내 자영업에 대한 수요가 제약

-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생산인구 비중은 낮은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자 비중은 전국 대비 높은 모습
- 평균소비성향이 40대를 정점으로 하락하기에 이와 같은 인구구조 특성이 충북의 낮은 평균소비성향\*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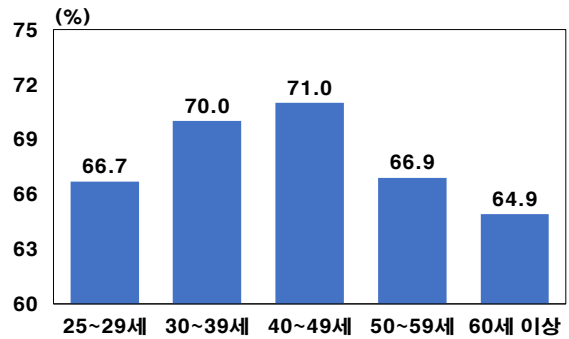
\* 충북의 평균소비성향(개인최종소비지출/개인총처분가능소득)은 76.4%로 전국(81.6%) 대비 낮은 수준(2020년 기준)

충북 및 전국의 연령별 인구비중<sup>1)</sup>



주: 1) 2021년말 주민등록인구 기준  
자료: 통계청 「주민등록인구현황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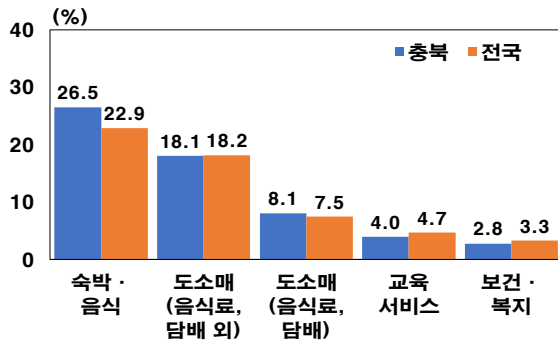
연령별<sup>1)</sup> 평균소비성향<sup>2)</sup>



주: 1) 가구주 연령기준  
2) 2020년 가구별 소비지출 / 처분가능소득  
자료: 통계청 「가계동향조사」 MDI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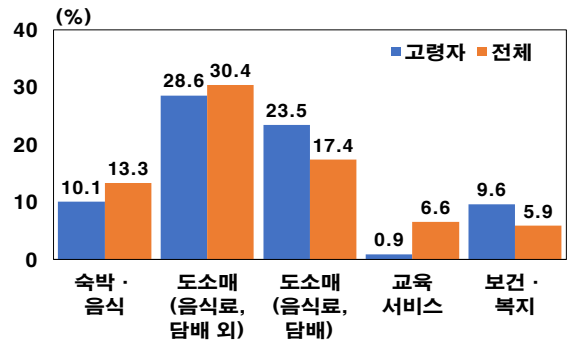
- 또한, 고령자는 도내 자영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소비 비중이 다른 연령 대비 낮아 자영업 수요가 추가적으로 제약될 소지

충북 및 전국의 주요 업종별 자영업 비중<sup>1)</sup>



주: 1) 2019년 전체 개인사업체 대비 비중  
자료: 통계청 「전국사업체조사」

주요 업종별 고령자의 소비 비중<sup>1)</sup>



주: 1)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전체 소비액 대비 비중  
자료: 통계청 「가계동향조사」

## 2 역외소비 증가(경쟁범위 확대)

◆ 온라인 소비 확대, 인접지역에서의 대형 유통업체 입점 증가 등으로 역외소비가 증가하면서 영업환경이 악화

□ (오프라인 → 온라인) 디지털경제로의 전환, 1인 가구 비중 증가 등으로 충북의 온라인 소비 지출액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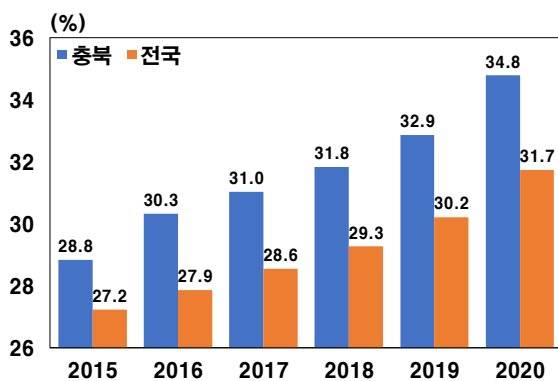
○ 충북의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8.8%(전국 9위)에서 2020년 34.8%(4위)로 전국보다 빠르게 증가

— 한편, 1인 가구의 소비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66.8%(전체 가구 60.7%, 컨슈머인사이트 20.3월 설문조사 기준)

○ 2018~21년 중 충북지역의 온라인 소비 지출액\* 증가율(평균)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26.8%(1위 세종 27.9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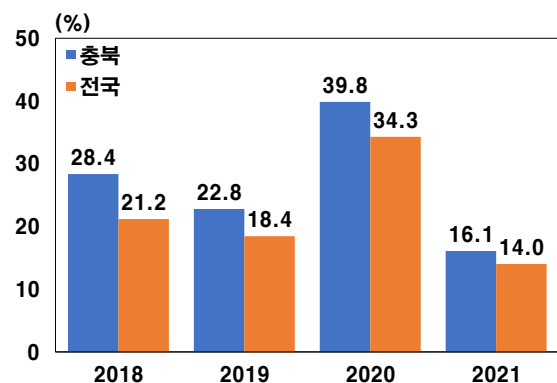
\* 소비 관련 데이터는 한국은행이 신한·하나카드사와의 MOU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<참고 4> 「소비현황 분석 데이터」 참조

충북 및 전국의 1인 가구 비중<sup>1)</sup>



주: 1) 전체 가구 수 대비  
자료: 통계청 「인구총조사」

전국 및 충북 온라인 소비<sup>1)</sup> 지출 증가율<sup>2)</sup>



주: 1) 전자상거래, PG, CATV 기준  
2) 이용가능 시점의 한계로 2018년부터 분석  
자료: 하나카드

□ (지역 내 → 주변 지역) 최근 대전, 세종 등 인접 지역에서 대형 유통업체\*의 입점이 이어지는 모습

\* 대형마트, 창고형 대형마트(실내장식을 최소화한 창고형 공간에 대용량이나 묶음형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대형마트), 백화점 등으로 정의\*



- 대형마트는 홈플러스, 이마트, 롯데마트를, 창고형마트는 이마트 트레이더스, 홈플러스 스페셜, 코스트코를, 백화점은 현대·롯데·신세계·갤러리아 백화점, AK플라자를 포함

- 특히, 충북지역에 부족한 백화점(충북 내 1개), 창고형 대형마트(1개)의 입점이 활발\*

\* 자세한 내용은 <참고 5> 「충북 및 인접지역의 대형 유통업체 입점 현황」 참조

□ 이와 같은 온라인 소비 증가, 주변 대형 유통업체 입점 등으로 충북의 역외소비가 크게 확대

- 충북의 2018~21년 역외소비 증가율(평균)은 9.0%로 전국 3위

\* 2018년 9.9% → 2019년 9.1% → 2020년 5.5% → 2021년 11.6%

- 전체 소비에서 역외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며 2019년 이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가운데 전국과의 격차도 확대

충북 및 전국<sup>1)</sup>의 역외소비 비중<sup>2)</sup>

구분	2017	2018	2019	2020	2021
충북	51.6	52.7	54.4	56.8	59.3
전국	52.5	52.9	54.3	55.4	56.9

주: 1) 17개 광역시·도 단순 평균 기준 2) 전체 신용·체크카드 사용액 대비  
자료: 신한카드, 하나카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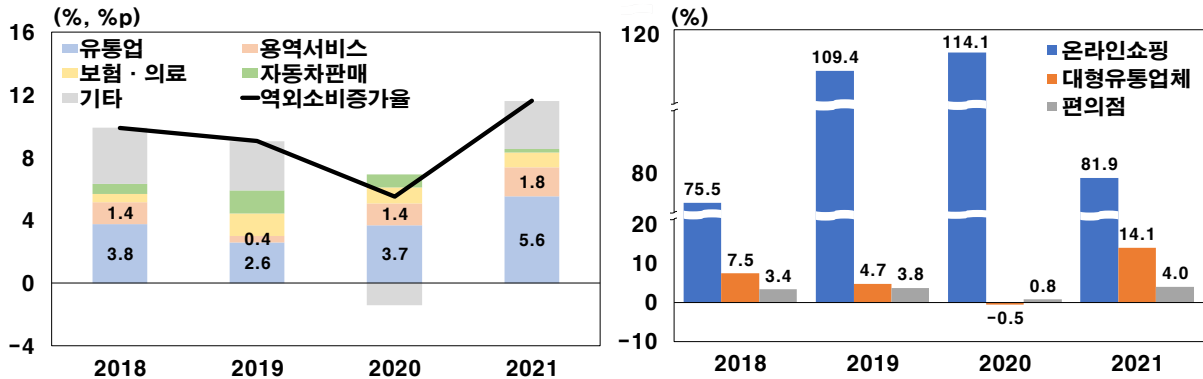
- 반면, '20년과 '21년 충북 거주자의 역내 소비 증감률은 각각 -4.3%, 1.0%로 전국 평균(1.8%, 4.3%) 대비 부진

-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통업이 역외소비 증가세의 상당 부분을 주도하는 모습

- 유통업의 역외소비 증가는 온라인쇼핑이 주로 견인하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의 기여율도 최근 들어 확대

- 한편, 유통업 외에는 용역서비스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

주요 업종별<sup>1)</sup> 충북 역외소비 증가 기여도 주요 세부업종별 유통업 역외소비 증가 기여율



주: 1) 2018~21년 중 역외소비 증가 기여도가 높은 4개 업종  
 자료: 신한카드, 하나카드

<참고 4>

**소비현황 분석 데이터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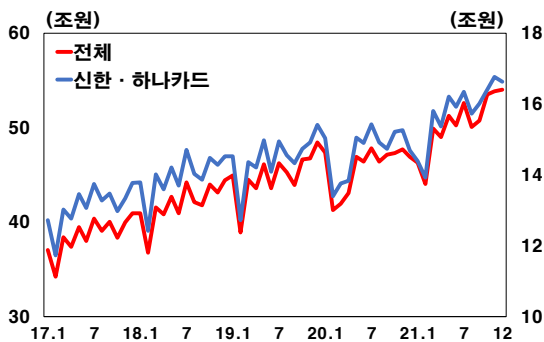
□ 청구지·가맹지별 결제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전체 신용카드 데이터와 연관성이 높은 신한카드, 하나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내 소비현황을 분석\*

\* 다만, 신한카드의 경우 세부업종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온라인 소비, 유통업 내 세부업종 분석 시에는 하나카드 데이터만을 활용

○ 신한·하나카드 결제액이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.3%(2021년 기준)이며 양 자료간 상관계수(2017.1월~2021.12월 중)는 0.99

○ 한편, 청구지(충북)와 가맹지가 다른 경우를 역외소비(소비유출)로 간주

**전체 및 신한·하나카드 결제액<sup>1)</sup>**



주: 1) 가맹지 기준  
 자료: 한국은행, 신한카드, 하나카드

**신용카드 결제 데이터 구조**

청구지 가맹지	충북	충북 외	계
충북	A (역내소비)	C (소비유입)	A+C (충북 내 소비)
충북 외		B (역외소비)	
계	A+B (충북 거주자 소비)		

자료: 자체 작성

<참고 5>

### 충북 및 인접지역의 대형 유통업체 입점 현황

□ 충북의 서쪽에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입점이 활발

#### 2010년 이후 충북 및 인접도시에 입점한 대형 유통업체<sup>1)</sup>

(점포 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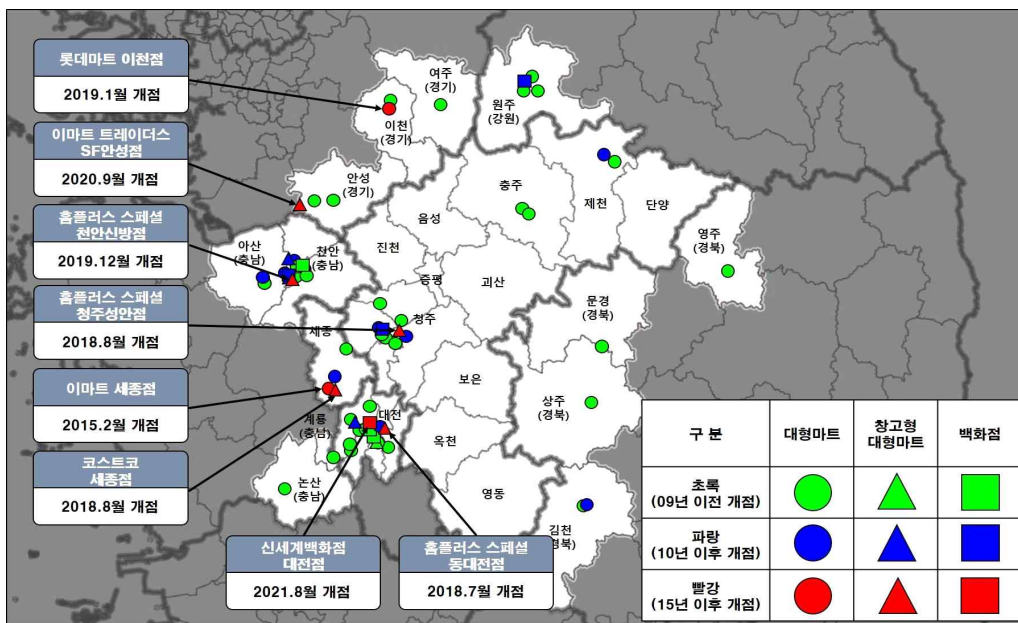
구 분	마트		백화점	계
	일반	창고형		
충 북	3(0)	1(1)	1(0)	5(1)
대 전	1(0)	2(1)	1(1)	4(2)
세 종	2(1)	1(1)	-	3(2)
충 남(천안·아산·논산·계룡 기준)	4(0)	3(1)	1(0)	8(1)
강 원(원주 기준)	2(0)	-	1(0)	3(0)
경 기(이천·여주·안성 기준)	1(1)	1(1)	-	2(2)
경 북(김천·영주·상주·문경 기준)	1(0)	-	-	1(0)

주: 1) 괄호는 2015년 이후 입점업체 수  
 자료: 각 사 및 지자체, 언론종합 등

○ 특히, 충북에 부족한 백화점, 창고형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으로 지역민의 수요 유출이 확대될 우려\*

\* 충북에는 청주에만 각각 1개의 백화점 및 창고형 대형마트가 소재

#### 충북 및 인접지역의 대형 유통업체 분포도



### 3 코로나19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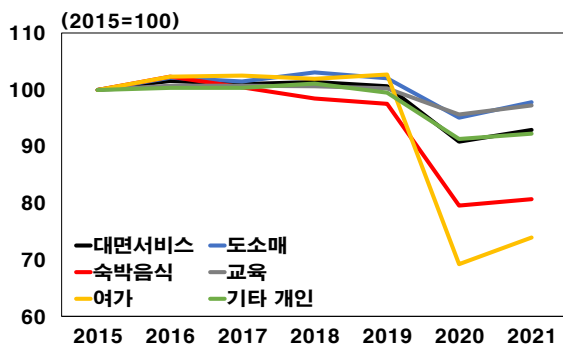
◆ 코로나19로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온라인 소비가 더욱 확대되는 모습

□ 대면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후 이전 수준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하는 반면 온라인 소비 전환속도는 빨라지는 모습

○ 특히, 디지털화 과정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고령층의 온라인 소비가 크게 증가\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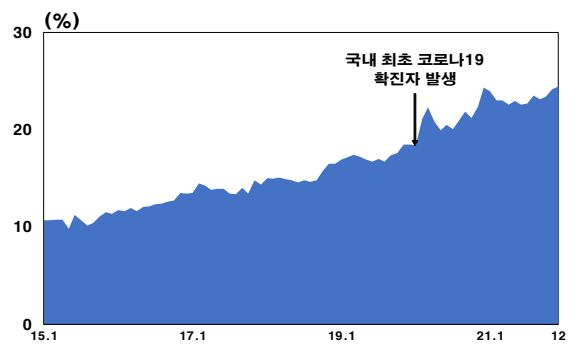
\* 2021년 디지털 소비를 경험한 50대(29.5% → 79.2%)와 60대(5.6% → 57.6%) 비중이 2019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(전체 44.0% → 82.1%, 한국소비자원)

대면서비스업 및 업종별 생산지수<sup>1)</sup>



주 : 1) 전국 기준  
2) 도소매는 자동차연료 판매, 무점포 소매업 등 제외  
자료: 통계청 「서비스업동향조사」

비대면 소비<sup>1)</sup> 비중 추이



주 : 1)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전자상거래/통신판매가 차지하는 비중  
자료: 한국은행

□ 동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되면서 충북 내 자영업 업황 개선이 지연될 소지

○ 비대면 소비의 편리함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완화·종식 이후에도 소비 습관을 유지\*할 가능성이 높음

\* 딜로이트는 「2021 소매산업전망」에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,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

○ 충북의 경우 대면서비스업 비중(67.1%, 전국 62.6%)이 높아 변화된 소비행태에 취약

○ 영세한 자영업 구조로 급속도로 전개되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할 여력 또한 부족해 도내 자영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

## IV 종합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

### 1 종합평가

-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도내 자영업 업황 부진세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심화되는 모습
  - 영세한 자영업 구조, 높은 대면서비스업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더욱 크게 노출된 것으로 평가
-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단기적인 업황 개선은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·구조적인 개선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
  - 낮은 개인소득, 취약한 인구구조 등으로 지역 내 수요가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
  - 전자상거래 확대 및 인접 지역에서의 잇따른 대형유통업체 입점 등으로 역외소비가 확대되며 지역 내 수요가 타 지역으로 유출
  - 코로나19 이후 소비패턴 변화 및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전환은 충북 내 자영업 업황 개선에 하방요인으로 작용



## 2 정책적 시사점

### (수요기반 확충)

□ (소비 활성화) 고령층 소비 촉진, 지역 상권 활성화,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사용방안 강구 등으로 역내 소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

-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지역 내 증가세가 지속되는 고령층의 소비성향을 제고
- 지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조성,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유도
- 한편, 개별 지자체별로 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합\*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

\* 음성과 진천이 동일 경제·생활권인 충북혁신도시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교차사용을 허용(2020.12월)한 사례 등 참고

□ (직주 불일치 해소) 정주여건 제고 등을 통해 도내 통근자 및 가족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여, 소득유출을 줄이고 지역소비를 활성화

- 특히 자녀 양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교육,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

— 초·중·고 교육의 질(전국 11위), 학교 외 교육(12위) 등 교육 관련 만족도가 타 지역 대비 높지 않은 모습(국가균형발전위원회, 2020년)

— 치료가능 사망률(46.95, 전국 41.83, 2019년 기준)\*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\*도 '매우 열악'한 것으로 평가(보건복지부)

\* 조기치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비율(인구 10만명 당)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

\*\*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해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를 비교한 지표로 2015~19년 기준 충북, 대구, 경북만 '매우 열악'으로 평가

□ (신규 수요 창출 노력) 관광 등 외부 수요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

○ 여행지로서의 충청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전국 최하위 수준을 지속

국내 여행지별 관심도 <sup>1)</sup>				최근 방문 여행지 <sup>1)</sup>			
구분	2019	2020	2021 (%)	구분	2019	2020	2021 (%)
제주	54.3	52.9	63.5	강원	20.5	20.3	19.5
강원	46.7	46.4	54.4	제주	9.9	10.5	11.7
부산	43.8	34.8	43.9	경기/인천	10.8	11.2	10.8
전남/광주	26.8	25.2	29.2	경북/대구	9.0	9.2	9.8
경기/인천	24.6	21.4	26.1	경남/울산	8.5	9.6	9.3
서울	28.5	21.7	26.0	전남/광주	9.0	9.5	9.1
...				...			
충북	16.4	15.8	20.7	충북	3.3	3.7	3.6

주: 1) 요즘 해당 여행지를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에 비해 커졌다고 답변한 비율  
 주: 1) 가장 최근에 다녀온 국내여행지 중 비중  
 자료: 컨슈머인사이트

○ 지역 내 관광자원\*과 지역 내 먹거리, 숙박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 및 관광수요 확대

\* 전국 228개 지정관광지(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) 중 22개가 충북 내 소재하고 있으며 이는 강원(41개), 경북(32개), 전남(28개), 충남(25개)에 이어 5위

— 특히, 자연친화형·체험 관광, 개인 취향 맞춤형 여행 등 최근의 관광 트렌드와 지역 특색을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

(자영업 대출 관리)

□ (모니터링 강화) 부채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

○ 취약차주의 대출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·채무 여건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자영업자 부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 구축

○ 특히, 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이 종료\*되는 시점에 더욱 유의

\*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말 종료될 예정

□ (선별적 금융지원) 차주 특성을 고려한 금융지원으로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

○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이고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되,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차주와 회복이 불가능한 차주를 구분할 필요

— 현재 수익성 뿐만 아니라 장래성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고도화하는 등 효율적인 금융중개기능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

### (도내 자영업 구조 개선)

□ 도내 자영업의 경쟁력 제고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여력 확충 등을 위해 도내 자영업 체질을 개선

○ 창업컨설팅 및 사전교육 등을 제공하여 신규 자영업자의 경영·사업 역량을 제고하는 등 창업 전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

— 한편, 음식·숙박업 등 도내 밀집도가 높은 업종으로의 진입을 지양하고 비과밀 및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창업을 유도

○ 떡깨비\* 등 기존 공공 디지털 플랫폼 홍보를 확대하는 가운데 음식업 외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·인프라 개발

\*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공공배달앱에 민간앱을 결합해 지난 2020년 9월에 도입한 민관협력형 배달 플랫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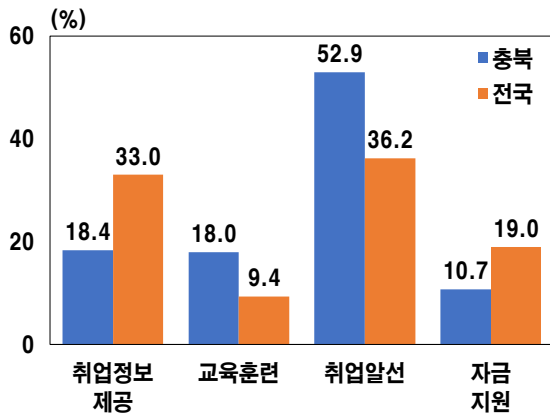


-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지원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 강화

□ **대면서비스업종 과밀 해소, 폐업부담 완화** 등을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전직 서비스 및 재기 기회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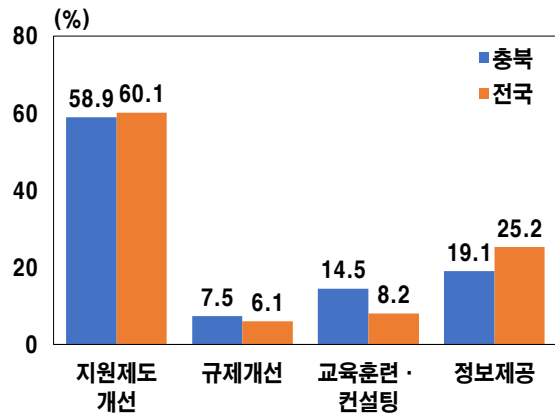
- 충북 내 자영업자의 경우 전직 시 단순 취업정보 제공 등보다는 취업 알선, 교육 훈련 및 컨설팅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희망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 수립

자영업자 임금근로자 희망 시 희망정책<sup>1)</sup>



주: 1) 전체 응답 대비 비중(2018년 기준)  
 자료: 중소벤처기업부 「소상공인실태조사」

자영업자 사업전환 시 희망정책<sup>1)</sup>



주: 1) 전체 응답 대비 비중(2018년 기준)  
 자료: 중소벤처기업부 「소상공인실태조사」

- 한편, 퇴로 부족, 폐업 시 사업자 대출 일시상환 부담 등으로 폐업을 유예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도 긴급

— 장기상환이 가능한 대환상품 제공 및 경영컨설팅 등을 연계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등 고려

## <참고 문헌>

김광민(2021), “충북의 역내외 소비유출입 현황 및 시사점”, 한국은행 충북본부

김우영, 박동규(2012), “자영업 비중에 대한 시계열 분석 : 실업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”, 중소기업연구 제34권-3호

김주영, 오지윤(2020), “경기지역 자영업 현황 및 대출 리스크 점검”, 한국은행 경기본부

딜로이트(2021), “2021 소매산업 전망”

배정민(2021), “대구지역 자영업 현황 및 정책과제”,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

오삼일, 황수빈, 유민정, 이종하(2021), “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 현황 및 평가”, BOK 이슈노트 제 2021-11호

오윤해(2021), “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”, 한국개발연구원

주동현, 노원중, 손종철(2013), “지역경제 자영업 활동 결정요인 및 구조개선 방안 : 경기도를 중심으로”, 한국은행 경기본부